

‘법’이 하나여서 예와 지금도 둘이 아니다

14 월정사, 근원에서 희망을 길다

월정사 전나무 숲길에서 들이 마시는 초여름 아침 바람은 단맛을 냅니다. 박하사탕을 다 먹고도 오랫동안 입안이 시원하듯 전나무 숲길에서 마시는 바람은 한참이나 머리를 선선하게 합니다. 그 단맛은 팔각구충탕 모서리에 달린 풍경을 뒤훑는 바람에도 스미어 있습니다.

탄허 스님의 호방한 서경기가 묻어나는 현판과 주련으로 장엄된 적광전에 들어섭니다. 왼쪽 문 옆 영단은 노후현 前 대통령의 사진을 중앙에 모시고 하얀 국화꽃이 둘러져 있습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49제가 받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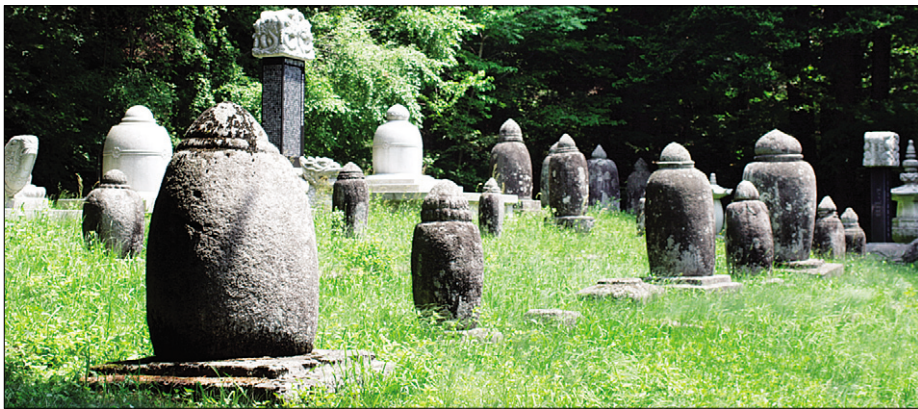
월정사 부도밭(강원도문화재자료 제42호)은 상원사 방향으로 500m쯤 올라가면 길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울창한 전나무 숲에 고즈넉하게 자리한 부도밭입니다. 높이가 2m를 넘는 커다란 석종과 있고 키가 낮은 석종, 균형을 잃고 삐뚤룩하게 서 있는 석종도 있습니다. 최근에 모신 살결이 뽀얀 팔각원당형의 부도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월정사 부도밭은 예와 지금의 스님들이 함께 모여 시공을 초월한 법당을 나누는 지대방 같습니다. 그러나 그 법당은 귀로 들을 수 없으니, 부도밭은 고요 이전의 고요속에 잠겨 있을 뿐입니다. 포르르 날아가는 산새의 날개 소리로 순식간에 고요 속으로 스며들고 투둑 떨어지는 전나무 마른 가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바닥에 뒹굴니다. 월정사 부도밭은 고요의 잔치마당입니다.

부도밭은 4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맨 윗단의 오른쪽에는 키가 2m를 넘는 웅장한 석종이 4기나 이어져 있습니다. 옆으로 작은 빗돌받침이 이끼를 뒤집어쓰고 있는데 석종의 몸통에서도 주인의 이름이 판독할 수 없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스님들의 사리(영광)를 모신 것으로 짐작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웅장한 석종을 조성할 정도면 당대의 큰스님들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개산조 자장 율사(590~?) 시대 이후 월정사의 역사가 그리 자세히 전하지 않으니 옛 부도의 주인들을 알기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한국전쟁을 맞아 온 도량이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그 경황없는 가운데 누가 ‘역사’를 챙겼겠습니까?

부도밭은 바람에 뜰고 비에 씻기며 이름 자국마저 잃어버린 옛 부도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끼서린 옛 부도들이 아무 말없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부도밭은 웅장한 설법전입니다. 월정사 부도밭도 오랜 석종들에서 울려 퍼지는 법향이 그윽하기만 합니다.

산단의 중간과 왼쪽에는 높게 쌓은 기단위에 큼직한 석종을 올려 모신 부도가 왼쪽에 탐비를 대롱



전나무 숲 속 부도밭 거닐며 ‘침묵의 설법’ 들어

한암·탄허 스님 탐비엔 재가제자들 이름 즐비... 정진 도량의 면모 보여

지장암 성진 스님 부도 연꽃 모양으로 조성 ‘특이’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석종과 탐비는 보문당 현로(玄路) 대선사의 것이고 그 옆은 혜원당 회섭 대화상이 주인입니다. 회섭(惠燮, 1922~1993) 대화상의 탐비는 2000년에 세웠는데 지관 스님이 찬했습니다. 회섭 스님은 일제의 교육을 거부하고 한학을 배우다가 탁발승을 만나 불교에 뜻을 두게 됐습니다. 36세에 집을 나와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다가 상원사에서 한암 스님을 친견하고 보문당 현로 스님의 상좌로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탄허 스님으로부터 경을 배우고 한암 스님에게는 선공을 이어받았다는 내용들이 탐비에 담겨 있습니다.

그 아래단에도 옛 석종들이 즐비한데 서은당(西隱堂) 해봉당(海峯堂) 묵암당(墨巖堂) 등의 이름이 보이지만 어떤 분들이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단에도 왼쪽으로부터 이름 모를 석종들이 5기나 이어져 있고 그 옆에는 이 부도밭에서 가장 큰 석종이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뒤편에 ‘선종인허당대사(禪宗印虛堂大師)’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니 특이하게도 석종의 몸돌 전체에 글씨를 새겼던 흔적이 있습니다. 전쟁의 흔적이니 총알자국도 몇 군데 보입니다. 아, 이 거대한 석종은 온 몸이 주인의 한 생애를 문신해 있었지만 바람에게 한 톨씩 몸을 뜰고 씻기며 그 내력을 다 잃어 버렸던 것입니다. 거기 총탄을 맞은 아픔까지 안으로 삭이며 부도밭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와 지금이 둘이 아닌 것은 ‘법’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랫단의 오른쪽에는 높디난 기단위에 윗부분이 움푹한 모양의 석종이 덩그러니 모셔져 있는데 몸돌에는 ‘지암대종사탑(智庵大宗師塔)’ 옆의 탐비에는 ‘지암대종사사리탐비’라는 글씨가 활달하게 쓰여 있습니다. 비명을 지는 탄허 스님의 글씨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지암당 종욱(鍾郁, 1884~1969) 스님은 13세에 강릉 명주사로 출가 했으며 명진학교에서 공부 한 일, 3·1 운동 참가와 27결사대 조직 등 각종 독립운동에 힘쓴 일, 상해 임시정부 요인 등으로 활동하다가 육고를 치른 일, 월정사 주지로서의 업적 등이 탐비에 적혀 있습니다.

“내 차라리 하루라도 계를 지니고 죽을지언정, 백년을 파계하고 살기를 원치 않는다.”

1400여 년 전 왕(선덕여왕)의 부름을 사양하며 자장 율사가 보였던 결기 어린 한 마디입니다.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필지언정 삼춘(三春)에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

1925년 서울 봉은사 주지로 있던 한암(漢岩, 1876~1951) 스님이 세속의 모든 인연을 끊고 달마의 심장을 도려내려는 금강석 같은 의지로 상원사로 향하며 했던 말입니다. 한암 스님은 그로부터 입적에 이르기까지 27년간 한 번도 오대산문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 와중에 상원사를 소각하려 올랐던 국군 앞에서 “나는 부처님의 제자요. 법당을 지키는 것은 나의 도리니 어서 불을 지르시오”하며 법당을 지킨 한암 스님의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김제의 ‘백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신동 소리를 들으며 한학을 익히다가 인생의 궁극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길이 없어 한암 스님과 3년 여 동안 편지를 주고받다가 마침내 도포와 갓을 벗어 던지고 상원사로 달려와 먹물웃을 입은 탄허(呑虛 1913~1983) 스님, 세속에서 사사삼경을 익히고 탄허 스님의 무릎 아래로 출가해 상원사에서 사교를 배운 뒤 입선해 서래밀지를 참구한 만화당 회찬(惠讚 1919~1983) 스님은 전쟁중에도 피난을 가지 않

전나무 숲 속의 월정사 부도밭(왼쪽)과 상원사 한암·탄허·만화 스님 부도 및 탐비.



고 한암 스님을 끝까지 시봉해 ‘좌탈입랑(坐脫立亡)’을 지켜낸 호법승입니다.

자장 율사의 개산 이래 근현대 한국불교사에 우뚝한 걸출들이 오대산을 지키지 않았다면 지금의 도량은 상상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상원사 오르는 길 오른쪽 언덕에 한암 스님과 탄허, 만화 스님의 부도와 탐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한암 스님의 부도는 팔각원당형을 기본으로 했지만 지대석은 연꽃잎을 응용한 장구모양으로 등급계조했습니다. 몸돌은 위로 길이를 살린 원형이며 옥개석은 비교적 경사가 급합니다. 탐비는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한문으로 만든 것으로 제작된 탄허 스님이 지은 비문이 가득합니다. ‘선사속성방제 온양인야’로 시작되는 이 비는 1959년에 세워졌습니다. 2000년 일타 스님이 찬한 비문을 담은 새로운 비가 건립돼 부도 왼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새로 세운 탐비는 일타 스님이 탄허 스님의 비문과 기타의 자료를 종합해 찬했거나 비명은 탄허 스님의 것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탄허 스님의 부도는 팔각원당형을 전형적으로 이은 양식입니다. 스승의 탐비보다 크지는 않지만 우람한 탐비에는 일세를 품미한 대강백의 살림살이가 꼼꼼히 적혀 있습니다. 각성(覺性) 스님이 찬한 비문의 끝 문도질(門徒秩)을 훑어보다가 ‘재가상좌’ 항목에서 서우담 김지건 구자선 전창열 명호근 윤창화 송천우 등 익숙한 이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보니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의 탐비에는 제법 많은 재가제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두 선지식의 회상이 그만큼 넓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겠습니다.

세 걸승의 부도와 탐비가 있는 부도밭 뒤로 또 하나의 부도밭이 있습니다. 뒷밭처럼 작은 땅에 잡초와 들꽃이 무성하며 위가 뾰족하고 길쭉한, 흙사 총알처럼 생긴 부도 하나가 서 있습니다. 빗물에는 ‘이

씨평등성부도탑’이라고 적혀 있고 단기 4239년생이며 경거여고를 나왔고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수행하다가 입적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평등성’이라는 여자 신도의 이름은 한암 스님의 옛법비(탄허 스님 찬) 신도 항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길을 따라 내려오다가 남대 지장암으로 차를 돌립니다. 북방최초비구니선원인 지장암으로 이르는 길 오른쪽 위 언덕에 아주 어여쁜 부도가 있습니다. 옛 석종 앞에 놓인 부도의 주인은 묘공당(妙空堂) 성진(性眞, 1896~1983) 스님입니다. 성진 스님은 지장암으로 출가해 평성 지장암을 복원하는데 힘을 바친 선승입니다. 부도는 온 몸을 연꽃잎으로 장엄해 마치 연꽃이 켜켜이 있을 티워 하늘을 향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대산 월정사의 역사는 어제의 것이 아니라 오늘의 것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상원사와 중대암이 오랜 불사 끝에 사격을 일신했고 지금은 월정사도 단기출가로 세파에 지친 사람들에게 감로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만 문수보살의 성지 월정사는 불교의 근원을 따라 새 희망을 길어 올리는 깊고 깊은 법의 우물입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기본참고자료

〈역대고승비문〉서리, 이자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도〉정영호, 대원사.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염기표, 학연문화사. 〈전통사찰문화〉사찰문화연구원. 〈갑사역의 길잡이〉한국문화유산연구소, 돌베개. 〈동사열전〉김윤세 역, 광재원. 〈잊혀진 가람탐방〉장지현, 역사신문. 등.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많고 불경기에도 흥망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화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첫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슬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리내 제작해 품유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능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원점, 보석상, 부동산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점,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 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전거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영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영주는 부처님께 예를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 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쟁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쟁에 나간 장수의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지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병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

운전하는 가족친지에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톱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능협 : 032-12-193445 이상하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 행운의 염주, 불멸의 염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을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아담과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짜고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법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 수 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와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능협 : 032-12-193445 이상하